

“반려견과 옥정호 뱃꽃축제 가보개” 민생안정지원금 실효성 확대

임실군, 4월 5~6일 반려인 · 반려견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올해 임실군 옥정호 뱃꽃축제는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어 반려인들에게 큰 특별함을 안겨줄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내달 5일과 6일 개최되는 옥정호 뱃꽃축제에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임실에서 우리 함께 꽃길 걸개'라는 남다른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 40팀(명)이 참여하여 장애물 넘기와 점프 훈련, 반려견과 함께 트레킹, 옥정호 출렁다리 이용 시 주의 사항 및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 기다려 오래 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반려인과 반려견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에 반려견과의 동반 입장 시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반려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으로 반려견과 같이 갈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올해 임실군 옥정호 뱃꽃축제는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어 반려인들에게 큰 특별함을 안겨줄 전망이다.

확인을 마친 후 출렁다리를 건널 때는 반려동물 캐리어 및 유모차를 이용해 출입이 가능하다.

출렁다리를 건넌 뒤 봉어섬 생태공원에서는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함께 뱃꽃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이번 뱃꽃축제는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열리는 첫 행사로서 옥정호 뱃꽃 노래자랑 첫 개최 등 더 차별화 되고, 더 풍성한 먹거리를 선사한다.

축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5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임실방문의 해

선포식 및 불타는 트랜맨 순대진, 트롯 프린스 양지원, 트롯 다람쥐 강혜연, 트롯 요정 김다현의 축하공연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운수밴드 공연 △삼파라 라클라세 △임실필봉악악 △이카펠라 공연 △MC 파니온과 함께하는 임실댄스난장 △2025 옥정호 뱃꽃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무대 행사가 마련된다.

또한 옥정호를 배경으로 한 인생 사진 서비스와 옥정호 벽화 그리기, 임실 대표 관광명소 5선 인기투표, 도자기 체험 판매, 폐어로 풍선 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심 민 군수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풍성한 축제를 준비 중”이라며 “절대는 봄날 열리는 뱃꽃축제에 많이 오셔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으로 물든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을 사랑하는 반려견과 거닐면서 축제도 실컷 즐기시고 옥정호의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사용자 확대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사용자 80% 초과

남원시가 시민들의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사용자 확대 이후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올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75,862명에게 228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읍·면 지역에서는 사용자 수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제기 되었으며, 사용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시일 내 사용을 제고 위해 사용자 중심의 실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원시는 사용자 편의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하나마트 등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의 사용자

제한을 해제하고, 관내 전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확대했다.

사용처 확대 조치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사용자 금액이 약 18억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원금 사용률이 80%(약 183억 원)를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하는 등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소비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 활동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이 초기에는 사용처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사용자 확대를 통해 사용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46회 회장기 전국 소프테니스 대회 순창서 개최

소프테니스의 메카로 자리 잡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전국의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46회 회장기 전국 소프테니스 대회가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대장정으로 순창군 공설운동장 실내다목적구장과 제1고 소프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소프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소프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

도가 공동 후원한다.

순창군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군은 매년 15개에 달하는 전국 규모의 소프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회 기간 동안 단기 생활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위한 방역기동반 편성

남원시보건소(한용재 소장)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방역기동반을 편성, 정화조, 주거밀집 지역,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유충구제 약품을 투여하는 등 집중으로 방제한다.

이번 해빙기 방제는 매년 기온 상승으로 빨라지는 모기 활동 시기에 대한 선제 대응 및 여름철 모기 개체 수를 낮추기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모기 유충 단계의 방제는 유충 1마리를 제거하면 성충 500마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이 시기의 방제가 매우 중



요하다.

현재 남원시보건소는 집 주변의 웅덩이, 배수로, 하수구, 정화조, 물이 고인 소화전 등의 모기 서식지를 시민들로 부터 신고(620-7988)받아 신속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의회 경제능정위, 행감 지적사항처리결과 등청취

남원시의회 경제능정위원회(위원장 염봉섭)가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남원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염봉섭 위원장은 춘향제 기간 중 경의상가 특화거리 조성 진행 상황을, 이숙자 부위원장 산단단지 기업 유치와 관련, 분양률을 높이기를 당부했다.

소태수 위원장은 가로수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지홍 위원장은 바래봉 전망대 부근 철쭉 군락지 관리를 주문했으며, 이기열 의원은 환경농산물 수요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성을 주문하고, 김한수 의원은 토석 채취 허가 시 규정 및 절차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순창군은 올해도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청소년 포함)에게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취·창업 관련 교육 희망자이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가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수강하며,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청소년은 20%)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교육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초전산, 공무원 준비반,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열차 관광상품 개발 박차

심민 군수, 코레일관광개발 권백신 대표와 관광 활성화 논의

임실군이 전국을 무대로 열차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코레일관광개발(주)과 함께 철도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나갔다.

지난 13일 코레일관광개발 권백신 대표를 심 민 군수와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과 관광객, 열차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에는 전라북도 볼품없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이 있고,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와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관광 활성화 지역”이라며 “지난해 888만명의 생활인구가 찾아왔고, 올해는 천만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열차 관광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권백신 대표는 “치즈로 유명한

임실군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열차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임실군에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임실군의 보유 자원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천만관광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임실군의 우수한 관광자원 및 시설을 활용한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실군 주요 관광지 및 잠재 관광지를 연계한 해담 열차 투어 신규프로그램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다.

레이크루즈 해담은 국내 최초 숙박형 관광열차로 현재 인근 남원시가 포함된 2박3일 전국 코스를 운영 중이며, 향후 임실군을 포함한 투어 코스를 기획을 검토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군 특성에 맞춘 관광상품 개발 및 철도 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관광객이 많아지면 KTX 임실역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